KIA, '불펜·내야 보강'…이태양·이호연 품었다

KBO 2차 드래프트

'스윙맨' 이태양·'멀티 내야수' 이호연, 즉시 전력감 확보
불펜 재편·내야 뎁스 강화, 전력 균형 보완 첫 단추 끼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5 KBO 2차 드래프트에서 투·타 두 자원을 품으며 전력 보강에 나섰다.

KIA는 19일 비공개로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우완 투수 이태양(한화), 3라운드 내야수 이호연(kt)을 지명했다.

2025 KBO 2차 드래프트

키움 히어로즈

	순위	성명	소속	비고
1R	1	안치홍(내)	한화	
2R	5	추재현(외)	두산	
3R	10	배동현(투)	한화	
4R	16	박진형(투)	롯데	
5R	PASS			

두산 베어스

	순위	성명	소속	비고
1R	PASS			
2R	6	이용찬(투)	NC	
3R	PASS			
4R	17	이상혁(외)	한화	
5R	PASS			

KIA 타이거즈

	순위	성명	소속	비고
1R	2	이태양(투)	한화	
2R	PASS			
3R	11	이호연(내)	KT	
4R	PASS			
5R	PASS			

롯데 자이언츠

	순위	성명	소속	비고
1R	3	김주완(투)	LG	군보류
2R	7	김영준(투)	LG	
3R	12	최충연(투)	삼성	

KT 위즈

	순위	성명	소속	비고
1R	4	안인산(내)	NC	
2R	PASS			
3R	13	이원재(투)	두산	군보류

NC 다이노스

	순위	성명	소속	비고
1R	PASS			
2R	PASS			
3R	PASS			

삼성 라이온즈

	순위	성명	소속	비고
1R	PASS			
2R	8	장승현(포)	두산	
3R	14	임기영(투)	KIA	

SSG 랜더스

	순위	성명	소속	비고
1R	PASS			
2R	9	최용준(투)	KT	
3R	15	문상준(내)	KT	육성

한화 이글스

	순위	성명	소속	비고
1R	PASS			
2R	PASS			
3R	PASS			

LG 트윈스

	순위	성명	소속	비고
1R	PASS			
2R	PASS			
3R	PASS			

피지명 선수 수

LG	2
한화	4
SSG	0
삼성	1
NC	2
KT	3
롯데	1
KIA	1
두산	3
키움	0

KIA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전력 구조상 가장 필요한 영역을 겨냥했다.

올 시즌 내내 취약했던 불펜과 박찬호의 이적 후 얇아진 내야 뎁스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KIA의 첫 선택은 한화의 베테랑 우완 이태양(35)이었다. 2010년 한화에 5라운드 36순위로 지명돼 입단한 그는 통산 422경기 33홀드, ERA 4.96을 기록한 경험 많은 투수다.

한화에서 시작해 SSG(2020-2022년)에서도 3시즌을 보냈고, 2023년 다시 한화로 복귀했다.

2018년(ERA 2.84), 2022년(3.62), 2023년(3.23)처럼 여러 차례 준수한 시즌을 보낸 이력이 있으며, 100이닝 이상을 던진 시즌도 3차례에 이를 만큼 이닝 소화력이 큰 장점이다.

KBO 2차 드래프트에서 KIA의 선택을 받은 이태양과 이호연 〈한화이글스·kt위즈 홈페이지 캡처〉

최근에는 출전이 줄며 기복을 보였으나, 선발·불펜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스윙맨 유형으로 KIA 마운드 부담을 완화해 줄 카드로 평가된다.

3라운드에서는 kt 내야수 이호연(30)을 선택했다.

2018년 롯데에 2차 6라운드 53순위로 지명되며 프로에 입문한 그는 롯데와 kt에서 6시즌 동안 통산 타율 0.262(240경기)를 기록했다.

롯데 시절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지만, 2023년 kt로 이적한 뒤 85경기 타율 0.278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부상 등으로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32경기에 나서 타율 0.343, 장타율 0.486으로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다.

주 포지션은 3루지만 2루까지 소화할 수 있어, 박찬호 이탈 이후 약해진 내야 백업층을 보완할 현실적 옵션으로 꼽힌다.

KIA 구단은 두 선수가 내년 시즌 전력의 숨은 퍼즐 조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IA 관계자는 "이태양은 다양한 구종을 보유하고 있고,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투수"라며 "선발·불펜 모두 가능한 전천후 카드여서 영입 대상 1순위로 생각했다"며 활용 폭이 넓은 투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호연은 올 시즌 1군에서 활약했고, 타격 재능이 있는 즉시전력 내야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5 KBO 2차 드래프트에서는 10개 구단 총 17명이 지명됐다.

각 구단은 3라운드까지 지명 가능했으며, 2025 KBO 리그 성적 하위 3개 구단(키움, 두산, KIA)은 최대 2명의 추가 지명권을 부여했다. 지명 선수는 2026 또는 2027 시즌 의무적으로 현역선수(1군 엔트리)로 등록해야 한다.

단일 시즌 내에 1라운드 지명 선수는 50일 이상, 2라운드 지명 선수는 30일 이상 등록해야 하며,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는 의무 등록 기간이 없다.

한편, KIA 불펜 임기영은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삼성에 지명되며 새 팀에서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됐다.

/주홍철 기자

전남골볼, 전국골볼리그전 2년 연속 우승

챔피언결정전 승부차기 승리
김명진 대회 최우수 선수 선정

전남골볼선수단이 2025 전국골볼리그전 2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전남골볼팀은 지난 5월24일부터 11월16일까지 진행된 골볼리그전에서 선전을 이어가며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골볼리그전은 전국 상위 실력을 갖춘 골볼 전문선수들이 참가하는 1부리그다.

전남골볼팀은 플레이오프에서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7대6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4강전에서 맞붙어 승리를 거뒀던 충남팀.

전남골볼팀은 설욕에 나선 충남팀과 전·후반 3대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양팀은 연장전에서도 승패를 가리지 못했고, 엑스트라드로우(승부차기) 끝에 전남골볼팀이 6대3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골볼팀 김명진은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2025 전국골볼리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전국 최강에 오른 전남골볼팀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골볼팀은 이진 감독을 중심으로 조은별 코치, 정재은 트레이너와 함께 손원진, 김명진, 안영준, 홍세복, 김철환, 강인수 등으로 구성된 전남직장운동경기부로 이번 시즌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전국 최강에 올랐다.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전남골볼팀은 골볼 종목 저변확대는 전남장애인체육 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선수들은 전남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단합된 팀워크와 뛰어난 경기력으로 전남 골볼 위상을 드높이며 국내 골볼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임진출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남골볼선수단의 뛰어난 경기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전남 장애인체육의 밝은 미래를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팬 목소리 담은 응원곡 오늘 공개

'내사랑 빛고을' 작곡·녹음 등 구단 서포터즈 직접 참여

프로축구 광주FC가 팬들의 목소리를 담은 신규 응원곡을 공개한다.

광주는 19일 "신규 응원곡 '내사랑 빛고을'을 20일 낮 12시 정식 음원으로 발매하고,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응원곡은 광주의 도시 정체성인 '빛'을 핵심 모티브로 삼아, 팀과 팬이 함께 걸어온 여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작사·작곡은 광주FC를 꾸준히 응원해온 팬 정민서씨가 맡아 '팬이 만든, 팬을 위한' 응원곡이라는 상징성을 더했다.

'내사랑 빛고을' 제작에는 광주FC 팬 약 30명이 직접 녹음에 참여해, 팬들의 실제 목소리가 곡의 중심을 이뤘다. 녹음 과정에는 광주FC 홍보대사인 가수 조빈이 함께하며 전체 디렉팅을 담당했다.

조빈은 팬 한 명 한 명의 톤과 리듬을 조율해 응원곡의 몰입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작사·작곡을 맡은 정민서씨는 "이번 시즌 좋은 성과를 거둔 데 힘입어 응원곡을 작업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열띤 응원을 펼치는 광주FC 팬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곡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단 관계자는 "팬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응원곡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녹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장에서 '내사랑 빛고을'이 울려 퍼질 때, 팬과 팀이 하나 되는 순간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복싱 메카' 화순 빛냈다…'고인돌배' 성료

전국 동호인 31팀 600여명 참가 성황
종합우승 '순천SD'·준우승 '탑크로스'

화순군은 "최근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화순고인돌배 전국 복싱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복싱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복싱 동호인의 교류를 촉진하고 복싱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31개 팀, 600여명이 출전해 대한민국 복싱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화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회가 됐다.

대회 기간 화순군복싱협회는 경기장 내 구역별 안전요원을 배정하고, 각 경기 링에 간호사를 상시 배치했으며 구급차와 응급구조사도 운영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종합우승은 '순천SD', 준우승은 '탑크로스'가 차지했다. 부문별 우승은 ▲초등부 순천SD ▲중등부 복싱피스트 ▲고등부 탑크로스 ▲일반부 복싱스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지난 15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2회 화순고인돌배 전국 복싱대회 개회식에서 구복규 화순군수 등 내빈들이 대회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화순군 제공〉

구복규 화순군수는 "복싱의 메카 화순에서 열린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 복싱 발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초·중·고 선수와 군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무안군청 검도팀 김한범
亞·오세아니아 검도선수권 태극마크

무안군청 검도팀 김한범(사진)이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검도선수권대회(1AOKC)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김한범은 지난 18일 충북 음성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검도선수권대회(1AOKC) 최종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확정했다.

김한범은 지난달 보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던 1차 선발전 조별 리그전에서 안정적인 경기운영과 탁월한 집중력을 바탕으로 조 1위를 차지했다.

김한범은 최종 선발전에서도 무실점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16강전에서 홍성훈(수원시청)에 1대0 승, 8강전에서 조관현(부산시체육회)에 1대0 승, 4강전에서 김태연(용인시청)에 1대0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 정준호(인천시체육회)를 2대0으로 제압하며 출전 티켓을 따냈다.

2026년 5월30-31일 일본 도쿄(부도칸)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검도선수권대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약 20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새로운 국제 검도 경쟁구도를 형성할 중요한 무대로 평가되고 있다.

/박희중 기자